

일본 2005년도 농업센서스 결과

일본은 농림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의 2005년도 농림업 센서스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자료는 잠정치이며, 후일 공표할 예정인 전체의 상세한 결과(확정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05년치에는 미다케섬(三宅島)의 화산활동 및 니이가타현(新潟縣) 지진의 피해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세한 결과(2005년 농림업 센서스 결과개요)는 2005년 10월말 공표될 예정이다.

1. 농림업 경영체 조사

1.1. 농림업 경영체수

2005년 2월 1일 현재(오끼나와현은 2004년 12월 1일 현재, 이하 동일) 농림업 경영체수는 207만 1,000 경영체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 경영체수는 198만 9,000 경영체로 전회에 비해 15.9% 감소하였다.

1.2. 경영경지 총면적

농림업 경영체의 경영경지 총면적은 368만ha로 전회 보다 7.1%인 28만 ha가 감소하였다. 내역을 살펴보면 논 207만ha(경영경지 총면적에서 점하는 비율은 56.3%), 밭은 137만ha(경영경지 총면적의 32.7%), 과수원지 3만 ha(경영경지 총면적의 6.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농림업 경영체수

단위: 천경영체(%)

	농림업 경영체	
	농림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
2005	2,071	1,989 (96.0)
2000	-	2,365

주: () 내는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표 2 경지 종류별 경영경지 면적

단위: 만ha, %

	경영경지 총면적	논	밭	과수원지	경작포기지
2005	368	207(56.3)	137(37.2)	23(6.3)	38
2000	396	221(55.8)	149(37.5)	27(6.7)	34
증감률	△7.1	△6.3	△7.8	△13.2	10.9

주: (1) () 내는 경영경지 총면적에 대한 구성비임.
 (2) 경작포기지는 농림업 경영체, 자급적 농가 및 토지소유 비농가를 합한 면적임.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1.3. 대규모 농림업 경영체수

농림업 경영체를 경영경지 면적규모별로 살펴보면 0.3~1.0ha 층은 108만 경영체(전체의 52.1%)로 전회에 비해 19.0%, 1~2ha 층은 49만 9,000 경영체(전체의 24.1%)로 전회 보다 16.3% 감소하였다. 또한 2~3ha 층은 16만 2,000 경영체(전체의 7.8%), 3~5ha 층은 9만 9,000 경영체(전체의 4.8%)로써 전회에 비해 각각 12.7%,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10ha 층은 5만 경영체(전체의 2.4%)로 전회에 비해 1.0% 증가하였으며, 10~15ha 층은 1만 4,000 경영체(전체의 0.7%), 15ha 이상 층은 2만 9,000 경영체(전체의 1.4%)로 전회 보다 각각 4.9%, 7.5% 증가하였다.

표 3 경영경지 면적규모별 농림업 경영체수

단위: 천경영체, %

	0.3ha미만	0.3~1.0ha	1~2ha	2~3ha	3~5ha	5~10ha	10~15ha	15ha이상	계
2005	138(6.7)	1,080(52.1)	499(24.1)	162(7.8)	99(4.8)	50(2.4)	14(0.7)	29(1.4)	2,071
2000	-	1,334	596	186	106	50	13	27	-
증감률	-	△19.0	△16.3	△12.7	△7.0	1.0	4.9	7.5	-

주: () 내는 전체 경영체수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1.4. 판매금액별 농림업 경영체수

농림업 경영체를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0~100만엔 층은 33만 8,000 경영체(전체의 16.3%)로써 전회에 비해 23.4% 감소하였으며, 100~500만엔 층은 55만 5,000 경영체(전체의 26.8%)로 전회 보다 15.6% 감소하였다. 500~1,000만엔 층은 13만 7천 경영체(전체의 6.6%), 1,000~3,000만엔 층은 11만 6,000 경영체(전체의 5.6%)로 전회에 비해 각각 14.3%,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0~5,000만엔 층은 2만 1,000 경영체로 전회에 비해 11.0% 증가하였으며, 5,000~1억엔 층은 1만 경영체, 1억엔 이상 층은 5,000 경영체로써 전회 보다 각각 33.3%, 29.2% 증가하였다.

표 4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림업 경영체수

단위: 천경영체, %

	50만엔 미만	50~100만엔	100~500만엔	500~1,000만엔	1,000~3,000만엔	3,000~5,000만엔	5천만~1억엔	1억엔 이상	계
2005	889(42.9)	338(16.3)	555(26.8)	137(6.6)	116(5.6)	21(11.0)	10(0.5)	5(0.2)	2,071
2000	-	441	657	160	122	19	8	4	-
증감률	-	△23.4	△15.6	△14.3	△5.3	1.0	0.5	0.2	-

주: () 내는 전체 경영체수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1.5. 판매농가수

농림업 경영체 중에서 판매농가는 194만 9,000호이며, 전회에 비해 16.6% 감소하였다. 판매농가를 주부업별로 살펴보면 주업농가는 42만 8,000호(전체의 22.0%)로 전회 보다 14.5% 감소하였으며, 준주업농가는 44만호(전체의 22.6%), 부업적 농가는 108만 1,000호(전체의 55.5%)로써 전회에 비해 각각 26.6%,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판매농가를 전점업별로 살펴보면 전업농가는 44만호(전체의 22.6%)로 전회 보다 3.2%인 1만 4,000호가 증가하였다. 한편 제1종 겸업농가는 30만 8천호, 제2종 겸업농가는 120만 1,000호로써 전회에 비해 각각 11.9%,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판매 농가수 및 주부업별 농가수

단위: 천호, %

	판매농가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 농가	
2005	1,949	428 (22.0)	440 (22.6)	1,081 (55.5)
2000	2,337	500 (21.4)	599 (25.7)	1,237 (52.9)
증감률	△16.6	△14.5	△26.6	△12.6

주 : (1) () 내는 판매 농가수에 대한 구성비임.

(2) 판매농가는 경영 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를 말함.

(3) 주업농가는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이며, 65세 미만의 농업 종사 60일 이상의 자가 있는 농가를 말함.

(4) 준주업농가는 농외소득이 주이며, 65세 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자가 있는 농가를 말함.

(5) 부업적 농가는 65세 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자가 없는 농가를 말함.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표 6 판매농가 중 전겸업별 농가수

단위: 천호, %

	전업농가	겸업농가			계
		제1종 겸업농가	제2종 겸업농가	소계	
2005	440(22.6)	308(15.8)	1,201(61.6)	1,509(77.4)	1,949
2000	426(18.2)	350(15.0)	1,561(66.8)	1,911(81.8)	2,337
증감률	3.2	△21.0	△11.9	△23.1	△16.6

주: (1) () 내는 판매 농가수에 대한 구성비임.

(2) 제1종 겸업농가는 농업소득을 주로 하는 겸업농가를 말함.

(3) 제2종 겸업농가는 농업소득을 따르는 겸업농가를 말함.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1.6. 경작포기지 면적

전체 경작포기지 면적은 38만ha로써 전회 보다 10.9%인 4만ha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2. 농산촌 지역조사(市區町村에 대한 면접청취 조사)

2.1. 임야면적

2005년 2월 1일 현재 삼림면적(이하 현황삼림면적이라 칭함)은 2,435만ha로써 전회에 비해 1만ha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국유지는 718만ha(현황 삼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5%), 민간소유지 1,716만ha(70.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림 이외 초생지는 39만ha로 전회 보다 8.7%인 4만ha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현황삼림면적과 산림 이외의 초생지를 합친 임야면적은 2,473만ha로써 전회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율(총 토지면적에서 점하는 임야면적의 비율)은 66.7%이며, 전회에 비해 0.1 포인트 저하하였다.

표 7 총 토지면적 및 임야면적

단위: 만ha, %

	총토지면적	임야면적			현황삼림면적			삼림이외 초생지	임야율
		국유	민유	소계	국유	민유	소계		
2005	3,760	732	1,742	2,473	718	1,716	2,435	39	66.7
2000	3,760	735	1,743	2,479	721	1,715	2,436	43	66.8
증감률	0.0	△0.5	△0.1	△0.2	△0.4	0.1	△0.0	△8.7	△0.1p

주 : (1) 임야면적은 현황삼림면적에 삼림이외의 초생지 면적을 추가한 면적임.

(2) 현황삼림면적은 조사기일 현재의 삼림면적을 말함.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2.2. 삼림 기능별 현황삼림면적(삼림계획대상)

삼림계획대상의 현황삼림면적은 2,411만ha이다. 이것을 삼림 기능별로 살펴보면 水土보전림은 1,637만ha(삼림계획대상의 현황삼림면적에서 점하는 비율 67.9%), 자원 순환이용림은 500만ha, 삼림과 사람과의 공생림은 273만ha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삼림 기능별 현황삼림면적(삼림계획대상)

단위: 만ha(%)

	水土보전림	삼림과 사람과의 공생림	자원 순환이용림	계
2005	1,637(67.9)	273(11.3)	500(20.7)	2,411

주 : (1)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삼림계획대상의 현황삼림면적은 삼림계획 적용 예외로 되는 채무성 등의 관청(임야청을 포함)이 소관하는 삼림, 시험연구림, 社寺경내림 등을 제외한 현황의 삼림면적임.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2.3. 農振農用地내의 경지면적

경지면적은 478만ha이며, 이 내역을 살펴보면 논은 259만ha(경지면적의 54.2%), 밭은 183만ha(경지면적의 38.3%), 과수원지는 37만ha(경지면적의

7.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農振農用地내의 경지면적은 405만ha로써 논은 226만ha(農振農用地내의 경지면적에서 점하는 비율 55.8%), 밭은 149만ha, 과수원지는 31만ha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지면적 및 農振農用地내의 경지면적

단위: 만ha

	경지면적 계		논		밭		과수원지	
		農振農用地 내		農振農用地 내		農振農用地 내		農振農用地 내
2005	478	405	259	226	183	149	37	31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속보', 2005.9.21.

(박기환 kihwan@krei.re.kr 02-3299-43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